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4: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2:18-24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13:1-9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0) 어느 산에 와 있나요?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믿음 in '21 (2021년 주제곡)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초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Hyper-Uncertainty



정승락 목사 / Rev. Paul S. Jeong

몇 년 전 신문기사 중에 유난히 제 시선을 붙잡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였습니다. 1970년대를 규정했던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불확실성을 훨씬 뛰어넘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 경제상황을 다룬 용어였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경제구조, 삶의 양식을 보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장기화되는 격리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며 우울증에눌려 있었는데, 이후 생활고 및 극도로 치달는 분노로 “코로나 레드”라 불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로 절망, 좌절, 공허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랙”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으로 1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변화로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부분에 있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무서워 떨지 말며 주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도 되는 이유, 곧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처럼 감옥에 있으나 담대할 수 있고, 다윗처럼 도피하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우리의 삶은 ‘확실’하고 ‘괜찮습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확실한” 한해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There was a title of newspaper article that captured my attention a few years ago. It was “The Age of Hyper-Uncertainty”. Reading the article, I learned that there was a famous book called “The Age of Uncertainty” which was written based in 1970’s. The newspaper article writes that, 40 years later, we have gone beyond uncertainty and we live in the age of hyper-uncertainty. Back then it was dealing with politics and economic uncertainty. Now, watching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economic structure, and lifestyle due to COVID-19 makes me think that this is the age of hyper-uncertainty.

Even in examining our congregation, initially we called the depression under prolonged isolation “Corona Blue”. After that, we reached extreme anger in life and called the condition “Corona Red”. Now we have reached desperation, frustration and emptiness and call it “Corona Black”. We have been living with uncertainty, for a period of less than a year, not being able to see what is ahead of us. There is God’s Word that strengthens and comforts us at this time. It is Joshua 1:9.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frightened, and do not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This gives us encouragement and comfort living in hyper-uncertainty. However, there is a part in this passage that we often omit. It is the beginning part,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is not just simply words to comfort and encourage us. It is God’s command for the ages. It is God’s strict command to those who believe in Almighty God and His goodness not to fear and hesitate in any circumstances. This passage does not end in command. God said,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then gave us reason for obedience. It is the promise that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The reason why we can obey His command to not fear in this age of hyper-uncertainty is because of God’s promise to be with us.

If we are questioned how we are supposed to live in this age of hyper-uncertainty, although the situation does not allow us to see ahead, because Jehovah God is with us, we can profess that we can be courageous like Joseph in prison and not fear like David who was fleeing. Because God is with us, our life is certain and fine today. Even in this age of hyper-uncertainty, in midst of COVID-19, where we do not know what is ahead in 2021, I hope for you this year to become congregation who profess “certainty”, because God is with us.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0 편

어느 산에 와 있나요?
(히 12:18-24)

1. 시내산의 분위기가 본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18-21절, 참고/ 출 19:16-21)
2.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이 상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22절, 참고/ 계 22:1-2)
3.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누구일까요? 참고구절을 살피면서 답하여 봅시다. (참고/ 민 3:13, 엡 2:5-6, 히 12:16)
4. 24절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창 4:18-11, 히 10:19-22)
5. 오늘 말씀을 아래 시내산과 시온산 대조표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느 산에 와 있는지 나눠봅시다.

시내산	시온산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육체적)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영적)

■ 적용찬양: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신년인사
프로젝트 팀장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은혜로 2021년 일본어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표어 "I-ttitude"를 가슴에 새겨 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일본어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가 지켜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일본어부 담당 손목사님, 셀목자 다무라 장로와 함께 힘을 합쳐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올해도 일본어부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바야시 다카시 집사(일본어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포기 하지 않고 어려움 안에서도 승리하시는 베델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베델 역사 편찬위원회 팀장을 맡아 편찬위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느끼는 것은 편찬 사역은 교회의 뿌리를 찾는 일과 함께 역사를 돌아 봄으로써 미래를 꿈꿔 나가는 데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베델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뜻 깊은 일에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으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곽태일 장로(45주년 역사편찬)



지난 한 해 동안 아침 영상 메세지는 답답한 시간 속에서 소통하는 큰 힘이 되었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침 영상 메세지는 우리의 영적 고도를 높여주는 최고의 미디어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미디어팀

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김주홍 집사(아침 영상 메세지)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새로운 방식과 소통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부족하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한 성경통독을 끝까지 완주하고 셀식구들과 매주 모임을 가지며 실행위원으로서 잘 참여하고, 상황이 좋아져서 주보팀원들과 교회에 모여 함께 사역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욱 집사(주보 사역)



할렐루야, 2021년은 예전과 같이 많은 교우와 성전 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시큐리티 사역 팀에서는 작년에 진행해 오던 교회 CCTV 설비 보수 및 신규 설치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역팀과 협력하여 교회 방역 작업에도 동참하고, 다시 교회가 재개될 것을 대비하여 금요일 저녁 교회 순찰 및 주일 예배 시 교회 주변 순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 및 주일 학교의 많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귀중한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 또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집사(시큐리티)

할렐루야! 2021년 BAM 훈련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와 소그룹 모임으로 지난 가을 학기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1년 BAM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적 삶이 되도록 같이 고민하고 훈련받기를 기도합니다. I-ttitude 표어를 마음에 품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목사님과 Staff분들과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지학 집사(BAM 훈련)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 속히 어머니 아버지들과 베델 성도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 그리고 교회로 향하는 가벼운 발걸음을 보기 소망합니다. 비전 파킹장에서 예배당으로 향하는 성도님들의 환한 얼굴도 하루 속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속히 뵈겠습니다.

서우석 집사(차량 사역)



2021년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소망 안에서 힘차게 새해를 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베델 선교관에 선교사님들이 마음놓고 방문하실 수 없었지만, 2021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활발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또 선교관에도 잠시 쉼을 얻고자 찾아오시는 많은 분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다짐해 봅니다. 건강할 때 주의 몸 된 제단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덕영 장로(선교관 영접)

신년인사
프로젝트 팀장

섬길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



소의 해 2021년엔 우직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등을 바로 세우고 머리를 높이 들어 신앙의 고도를 높이고 믿음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베델의 가정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021년 연말 UCC 행사에는 다 같이 본당 예배당에 모여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달세!

우성무 집사(UCC 특별행사)



새해가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두려움과 낙심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주 은혜의 불빛으로 인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 그 간증의 목소리가 성전을 울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문구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의 태도를 견고히 하는 예수님만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서겠습니다.

이강오 집사(예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섬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예배진행 사역부는 매주 생방송 예배진행 도우미를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팬데믹으로 주일예배가 생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모든 강대상의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강대상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의 안전과 안내, 그리고 마이크로 폰과 스피커 음향과 조명 등 기술 문제와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행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방

송 중 실수가 생길 때도 있겠지만, 은혜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이광수 집사(예배진행)



지난해 홍보팀은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웃에 알리며 희망찬 봄하기를 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이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 장학사역을 홍보하여 팬데믹 속의 젊은 학생들을 격려하였고, 벌써 200회를 훌쩍 넘은 담임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교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4500여 명의 친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I-ttitude를 외치며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도, 하루속히 모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봉운 집사(홍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팬데믹 환경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목회 사역과 온라인 예배로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님과 헌신하시는 사역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모든 교회 사역들이 팬데믹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팬데믹 이전 시절에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이 분실하신 물건들을 찾아드리고, 또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으면서 기뻐하시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되었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석 집사(교내봉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조금 더 낮아진 우리의 모



습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일상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최규덕 장로(성가 사역)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은 아니다." 이 모토를 중심으로 한 부부동산은 하나님의 참된 가정 설계의 목적과 그분의 원하시는 본래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의 많은 팀 사역이 중단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부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올 하반기의 부부 동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경일 집사(부부동산)



간증
예수재림

예수 어워드가 준 감사 포인트



베델 성도님, 안녕하세요? 소망 가운데 2021년 맞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저희 예수 공동체에서는 '2020 예수 어워드(AWARD)'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과 셀모임 참석, 말씀 묵상 등등 모두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신앙생활을 든든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에 매겨져 있는 점수를 합산하여 상(REWARD)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어워드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일에는 조그마한 기회라도 열리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면서,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내지 않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까지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마음먹고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 말씀 읽기에 재미가 붙고, 셀원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지러웠던 2020년의 끝자락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선물도 너무나 좋았지만 몇 주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보니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변화들이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 읽기가 재미있어지면서, 신약을 통독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게도 신약 통독을 완주할 수 있었습

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복음서에서도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그려 놓았던 예수님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약을 함께 읽어나가는 셀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020년, 많은 변화로 쉽지 않았을 시간 동안 열심히 힘써 주신 예수를 섬기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쉽지 않은 여정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예수 지체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우리 셀로부터, 예수로부터, 베델로부터, 열바인으로부터, 캘리포니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정예린(예수 청3)

간증
방역사역

순종의 땀방울

지난해부터 미뤄둔 업무를 위해 한국 출장길에 올라 도착한 인천 공항은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양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하얀 방역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공무원들의 몇 가지 질문을 받은 뒤 시작된 14일간의 격리 생활은, 불과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내게 엄청난 구속사적(?) 스트레스를 안겨 주었습니다. 내가 여기는 왜 왔을까라는 회한이 든 건 그즈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과 유혹이 찾아오고, 저의 내면 깊이 감춰진 죄성이 벗겨지며, 숨어있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떠나선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군요. 저의 죄를 사하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원망과 유혹을 제게서 멀리 옮기옵소서!라는 자복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슬기로운 격리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번잡한 일상에서 격리되어 오롯이 주님과 나만의 생활이 시작된 이곳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씀으로는 영이 회복되고, 가볍게 시작한 운동으로는 온몸 가득 힘이 차오름을 느낍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라 휴식이고 회복이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보이는 창문 위로 지난해 주님이 행하신 감사했던 많은 일과 방역팀에 일어난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공기도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50파운드가 넘는 방역 장비를 들고 움직이면,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하고 숨이 차오릅니다. "힘드시죠?" 흠뻑 젖은 옷을 바라보며 하는 질문에 "아니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땀을 흘리니 건강해지는 것 같고 보람 있어 행복해요!"라는 김 집사님, 흘린 수고의 땀방울보다 순종으로 받은 은혜가 만 배나 더 크신 듯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귀한 사역에 저희를 불러 주시고, 쉽지 않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마음에 박힌 것처럼 새겨졌고 방역



팀원 모두에게 한마음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순종과 감사가 가득 담겨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들 주저하던 방역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여 헌신한 팀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고 소중합니다.

"아버지여, 주를 사랑하는 이분들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긴 순종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완희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셀/기도: 박경철 목사
 베델위임: 김성리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예심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심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심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영아부: 윤희준 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이정희, 장석영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베델 시니어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역광고

54차 전도폭발 (온라인) 모집

지난 2월 4일(목) 베델교회 시니어분들을 위한 COVID-19 백신 접종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제공한 KCS(Korean Community Services) Health Center는 FQHC(Federal Qualified Health Center: 연방공인 기관)으로 애너하임에 위치, 통합 의료시스템을 통해 지역 사회 및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증진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90여 분의 고령이신 베델교회 등록 교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접종은 1차 접종 일로부터 28일 후 제공될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KCS Health Center와 긴밀한 협조 아래 코로나 백신을 확보, 고령층에게 먼저 접종의 기회를 마련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교인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먼저 등록하시고, 기다리실 것을 권합니다. KCS와 백신 확보를 위해 수고하신 행정목사님, 시니어분들을 모 집해주신 한순고 전도사님과 봉사자분들의 도움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 1차 접종: 2월 4일/ 2차 접종: 3월 4일
- ▶ 장소: KCS Health Center 애너하임
- ▶ 참조: www.kcshealthcenter.org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영영)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전도의 태도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

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

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의 제

자로 양육해서 교회를 질적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역입니

다. 이 사역을 통해 베델교회는 수백 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 팬데믹 상황에도 평신도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전도의 열정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도훈련은 훈련생, 훈련자, 기도후원자가 팀워크를 이루어 체계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현장방문(온라인)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쉽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의, 그룹활동, 현장실습 등을 통해 무장하게 되며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델제자훈련 5단계 중 4단계인 전도폭발은 베델인이라면 꼭 참여하여야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의 태도를 점검하여 주님의 제자로, 친구로,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 ▶ 일정: 2월 16일-6월 1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김홍식 목사 (949)394-5320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선교작정현금(매월첫째주)- 노란색봉투로!** 오늘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정하신 선교현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 **온라인, 현장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숫자 내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실외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checkin.bkc.org)

① 현장예배: 토요 0부 예배(온 가족 예배), 매주 **토요일 5시**

② 현장예배 신청 전 자가 점검을 해주세요!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 발열 37.5 °C/ 99.5 °F 이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유사 증상이 있는 분
- 위 조건에 있는 분의 동거가족인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시길 바랍니다.

◆ **예배 캠페인(Worship Manner Campaign)** "Non-Contact 시대, God-Contact 하라."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God-Contact 실천사항)

- ① 마음에도 옷이 필요합니다 -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하기
- ② 자세는 태도입니다 - 바른 자세로 예배하기
- ③ 땀방 누리기 -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축도까지 예배하기

◆ **수요특별기획: 선교다큐 "불(Fire)"** 설교 말씀과 함께 더불어 터키와 이슬람권 6개국(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아르메니아) 선교현장의 복음전도자, 교회개척자, 현지교회 목회자, 선교사들의 간증과 사역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불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선교다큐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2편이 방영됩니다.

① 설교: 빌 2:3-5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7국 장과장 선교사)

② 다큐 2편: 다음 세대에 피어나는 불(난민 어린이 학교)

시청 방법: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카톡 채널/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선교 보안 관계로 두 차례 실시간으로만 방영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선교 팀원 모집**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영상 편지도 보내고, Zoom 미팅을 통해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토요 햄시바 기도회에서 선교영상보고도 하는 등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일정/문의: 과달라하라 2월 14일(주일)-4월 17일(토), 박지현 집사 (217)390-4107

일정/문의: 베트남 2월 21일(주일)-5월 1일(토), 정재홍 집사 (248)202-0777

◆ **카타콤 기도회** "각 가정과 일터로 영적인 카타콤이 되게 하라."라는 취지로 온라인 중보 기도회가 Zoom으로 모입니다.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Zoom 회의 ID: 935 9750 9413

◆ **조찬사역** 설날 맞이 행사로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에 조찬사역에서 심방 과일 바구니를 전달합니다.

문의: 김철 집사 (714)602-0025

◆ **셀목자 수양회** 사랑하는 베델교회 셀목자님들을 2021 봄학기 셀목자 수양회로 초대합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신 셀목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셀 사역의 고도를 높여라'라는 주제로 새로운 한 해의 셀사역을 시작을 하려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하여 큐알코드 신청 안내 문자를 2월 11일(목)부터 각 목장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니 셀 목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월 20일(토) 오전 9시-11시, 베델교회 코트 야드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54차 전도폭발 모집** "전도의 태도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 54차 전도폭발은 Zoom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려 합니다.

훈련 일정: 2월 16일-6월 1일(총 14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B+B Divorce Care(이혼가정 회복 프로그램)**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에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3월 5일(금)-5월 28일(금) 13주간

장소: 온라인 Zoom 미팅(아이디 번호는 시작할 때 알려드립니다.)

등록비: \$20(교제비)

등록처: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

문의: 한상섭 장로 (949)735-8472,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 **예살 Family Friday Night** 예살의 주중 예배 "예살 Family Friday Night" 이 2월 12일(금)부터 매주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월 12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예살 유튜브 채널)

문의: 서찬석 목사 (714) 869-5093

◆ **한국학교 봄학기 성인반(온라인) 모집** 베델한국학교가 성인을 위한 봄학기 한국어 반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베델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강의 기간: 3월 6일-5월 15일(10주 과정)

강의: 수요일(오후 7시-9시), 토요일(오후 1시 30분-3시 30분)

대상: 9학년 이상의 성인

등록 기간/등록비: 2월 1일(월)-3월 5일(금), \$190

문의: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위로해주세요**

故 김원길 성도님(김수잔 성도의 남편)께서 1월 13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Which Mountain Are You On?

(Hebrews 12:18-24)

1. How is the atmosphere of Mount Sinai described in the passage? (vv.18-21, Ref: Ex 19:16-21)
2. Hebrew preacher says that the mountain we are on is not Mt. Sinai, but it is Mt. Zion. What place does Mt. Zion represent? (v.22, Ref: Rev 22:1-2)
3. Who are the "assembly of the firstborn"? Examine reference verses to answer. (Ref: Num 3:13, Eph 2:5-6, Heb 12:16)
4. What is "better word than the blood of Abel" in v.24? (Ref: Gen 4:18-11, Heb 10:19-22)
5. Organize today's message by completing Mt. Sinai and Mt. Zion chart below and share which mountain we are on.

Apply to Life



Mt. Sinai	Mt. Zion
To touch, see and feel (Physical)	Heavenly City, Jerusalem (Spiritual)

■ Song in Response: Great is the Lord,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